

삼손 정전

VINCENT CHEUNG

Copyright © 2025 by Vincent Cheung  
<https://www.vincentcheung.com>

ACCELERATED BY BRAK

# 목차

|                      |    |
|----------------------|----|
| 1.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 4  |
| 2. 포로됨의 패턴           | 10 |
| 3. 구원자의 탄생           | 16 |
| 4. 사자와 수수께끼          | 22 |
| 5. 여우들과 나귀 턱뼈        | 28 |
| 6. 가사의 문             | 35 |
| 7. 들릴라               | 40 |
| 8. 영웅의 귀환            | 46 |
| 9. 그리스도의 그림자         | 53 |

## I.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입에 오를 때,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은 단 하나의 장면으로 급히 달려간다. 그들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는 삼손을 떠올린다. 정욕에 무너져 나실인의 신분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모습이다. 삼손은 낭비된 힘에 대한 경계의 이야기, 인격 없는 카리스마를 비웃는 속담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은 이 버전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교훈이 너무도 분명한 것처럼 말한다. 능력은 아무리 커도, 식욕과 정욕의 연약함이 모든 것을 지워 버린다는 것이다. 그의 인생은 그를 기리기보다 경고하기 위해 기록된 것처럼 전해진다.

이러한 왜곡은 너무 흔해서, 많은 사람은 그것이 왜곡이라는 사실조차 거의 자각하지 못한다.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화가 반사해 낸 메아리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삼손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축소되고, 들릴라의 무릎 위에 접혀 버리며, 그의 위대함은 실패의 그늘 뒤에 숨겨진다. 호의적으로 대하려는 사람조차도, 대개는 타협이나 정욕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잠깐 언급할 뿐이다.

이러한 축소가 얼마나 불균형하게 적용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윗은 밋세바와 죄를 범했고, 그 남편의 죽음을 꾸몄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기억은 그 한 사건으로만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시편을 노래한 목자, 언약과 왕권의 사람으로 존중받는다. 그의 죄는 기억되지만, 그의 전 생애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그의 믿음, 그의 부르심, 그의 승리, 승리 가운데 맞이한 죽음,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들릴라에게 가려져 버린다.

왜 삼손은 이렇게 더 가혹하게 다루어지는가. 이유의 일부는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냉소를 확인시켜 주는 요소를 확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흠을 집요하게 붙잡는다. 특히 그 흠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체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다. 그들은 삼손 안에서 낭비된 힘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비웃음 본능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삼손에 대해 말해주는 것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들은 흠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쉽게 변명하면서, 삼손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뒤집어 버리신 판결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증언한다.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의 이름을 기드온, 바락,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과 함께 한 호흡으로 언급한다. 그 장은 그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약속을 얻고, 사자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군대를 물리친 자들로 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평결을 전복시키는 한 마디로 결론짓는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삼손은, 세상이 땅에서 기억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서 기억되고 있지 않다. 세상은 그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은 그를 약한 자로 치부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두신다.

우리는 이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관용구도 아니고, 수사적인 장식도 아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의미는 조금도 흐리지 않는다. 세상은 그들을 무가치한 자로 판정했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으며, 광야와 동굴과 땅굴로 내몰았다. 세상은 그들을 멸시하고, 쇠사슬로 묶고, 조롱하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저울이 뒤바뀌었다. 아래에 있는 쪽은 그들이 아니라 세상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었고, 그들과 함께 걷기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들과 같은 공기를 마실 자격조차 없었다.

이 말의 의미는 역사를 통틀어 신실한 남녀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조롱을 받았지만, 그를 통해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불렸고,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감옥에 갇혔고, 다니엘은 사자들의 굴에 던져졌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들을 멸시한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 판결을 삼손에게 적용해 보라. 그는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했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했고, 지금도 성경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함께 두시고, 세상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그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다. 그를 규정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도, 현대 설교자들의 조롱도 아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다. 그 인정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도 흠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인정받을 만하다” 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삼손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을 훨씬 넘어선 자이기에, 이 세상 쪽이 그를 가질 자격이 없었다” 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견을 뒤집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내내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팔려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다스리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로 삼으셨다. 선지자들은 매를 맞고, 감금되고, 톱으로 켜졌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역전이 삼손을 규정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세상은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셨다.

히브리서의 그 장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점을 말한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흠 없는 자들이 아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막혔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고, 선지자의 엄한 책망을 받았다. 그들의 죄는 실제였고, 그 결과도 심각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 세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행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이 결정적인 표지였다.

삼손도 바로 이 무리에 속한다. 그의 죄는 분명했지만, 그의 믿음도 진실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능하게 하셨고, 그의 마지막 기도 응답하셨다. 이 기록은 우리가 그에게 잘못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의 잘못을 그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본질적인 쟁점이 된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시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실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낙관적인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은 믿음으로 조롱을 견디고, 불을 마주하고, 군대를 무너뜨린다. 삼손도 믿음으로 사자를 찢었고, 수천 명을 쓰러뜨렸고, 죽음 가운데서 원수들의 신전이 무너지게 했다. 그의 힘은 단지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다.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주로 정욕과 몰락에 관한 이야기라고 가정하고 읽는다면, 한 줄 한 줄을 잘못 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장면에서 들릴라의 그림자를 찾게 되고, 그의 위업을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우연한 힘의 폭발로 설명하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이 동정심 때문에 그를 히브리서 11장에 넣으셨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전제, 곧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을 때, 이야기는 하나의 일관성과 의미를 가지고 펼쳐진다. 그의 약점은 실제였지만, 믿음 밖이 아닌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약점이었다. 그의 승리는 실제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한 믿음의 승리였다. 그의 죽음조차도 패배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승리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전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그의 동기가 정욕뿐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할 기회를 찾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잘못 읽으면 이 이야기는 금지된 욕망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다. 올바르게 읽으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의 삶을 관통해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 이야기로 드러난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쳐 죽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친 힘의 이야기로 여긴다. 올바르게 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종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사건이다. 그가 생애의 끝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복수의 외침만을 듣는다. 올바르게 읽으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번의 마지막 행동으로 그의 부르심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이 두 가지 읽기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한쪽은 삼손을 어리석은 자로 끌어내리고, 다른 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한다. 한쪽은 세상의 평결을 되풀이하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평결에 복종한다. 여기에는 중립 지대가 없다. 세상의 왜곡된 초상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다.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서서 세상에 맞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관점이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아야 한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연히 모인 몇 가지 공적과 실패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의 생애이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믿었고,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다. 그의 승리와 약점과 넘어짐과 마지막 승리는 모두 이 더 큰 진리의 일부로 읽혀야 한다. 이 이야기의 줄기는 식욕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다. 줄기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삼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말을 건다. 삼손에 대해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신 같은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 대해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멸시받고, 왜곡된 초상으로 그려지고, 무시당한다. 세상은 그들을 하찮은 존재, 진보의 장애물, 조롱할 만한 사람들로 판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에서는, 세상 쪽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역전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쓰레기처럼 취급될 수 있지만, 하늘은 그들을 보물로 여긴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 있는 자라 부르신다. 그들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실패자로 축소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승리자로 기억하신다.

여기에서 날카로운 적용이 나온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삼손 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은 그의 삶이 거의 전적으로 정욕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라가 그를 완전히 규정해 버린 것처럼, 그의 죽음이 단지

경고용 비참한 결말에 불과한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이로써 자신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의견에 의해 형성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삼손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삼손을 존중하는 것은, 세상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중간은 없다.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하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위로의 말이기도 하다. 아마도 당신은 중상과 오해를 당했고, 왜곡된 이미지로 줄여진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믿음의 삶 자체가 어리석음으로 취급되었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약점, 한 번의 실패만으로 거의 다 설명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을 재는 기준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다.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 그의 인정을 얻는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믿음으로 당신은 세상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대중의 상상 속에서 떠도는 비극적인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단지 식욕과 정욕에 대한 경고에 머무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믿음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 그의 생애를 읽어야 하고, 이 렌즈를 통해 우리의 생애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은 믿음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그들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삼손의 생애는 이 판결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 2. 포로됨의 패턴

삼손의 이야기는 승리가 아니라 어둠에서 시작된다. 그의 삶은 죄와 심판과 구원이 길게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나타났으며, 이 순환이 바로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규정하였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탄생이 왜 중요했는지, 그의 소명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숭배와 압제에 빠진 시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다. 삼손의 이야기를 말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기업을 낭비했고, 대대로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와 긍휼로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사사기는 이 패턴을 분명히 보여 준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주를 섬긴 장로들이 죽은 후, “여호와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새 세대가 일어났다. 부모의 실패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 민족들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 결과 여호와는 그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겨 주셨고, 그들은 빼앗기게 되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패하게 하셨다. 고통 중에 신음하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죄로 돌아갔고, 흔히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순환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순환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우연한 변칙이 아니었다. 반역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었다. 사사기 2장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민족들을 그 땅에 남겨 두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을 벌하시도록 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징계도 구원도, 포로 됨도 안식도 모두 정하셨다. 인간의 죄는 실제였으나, 그것은 전능자의 작정 안에서 전개되었다. 이스라엘의 쇠퇴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도 이 패턴을 확인시킨다. 웃니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에서 구했지만, 그가 죽자 백성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다.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이고 팔십 년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백성은 다시 죄에 빠졌다.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를 물리쳤지만, 드보라가 사라지자 백성은 다시 타락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패배시켰지만, 그가 죽자 백성은 다시 우상에게 몸을 팔았고, 심지어 바알브릿이라는 거짓 신까지 섬겼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들에게서 구했지만, 그가 다스린 후에도 백성은 다시 떠났다. 이름만 바뀔 뿐, 패턴은 동일하다. 죄, 압제, 구원, 그리고 다시 타락.

이 순환들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웃니엘 시대는 비교적 신실해 보였으나, 기드온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기드온 자신도 이스라엘에 올무가 되는 에봇을 만들었다. 입다의 서원은 나라 전체의 영적 혼란을 드러냈다. 삼손에 이르면 이 하강 곡선은 분명해졌다. 백성은 단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지배 아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전의 순환에서는 백성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르짖음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 침묵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드러낸다. 그들은 구원을 요청하기보다,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부패의 뿌리에는 세대 간의 방치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서도 길에서도 그 말씀을 말하며, 손과 이마에 매어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성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셨다. 자녀가 그 의미를 물을 때, 부모가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셨는지 설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념 돌을 명령하셨다. 자녀가 그것을 물을 때, 부모가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가르셨는지 회상하여 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며, 새 세대마다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이러한 예식은 공허한 형식이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아 있게 보존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가족의 기억 속에 새기며, 이스라엘이 왜 한 나라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라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유월절 식탁에서 아이가 “왜 우리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라고 묻고,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급히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다. 혹은 아이가 요단 기슭의 돌을 가리키며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나요?” 라고 묻고,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언약궤 앞에서 물을 끓으셨기에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다” 라고 설명하는 모습이다. 믿음은 본래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가르침을 통해 전달되어야 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의식을 행했지만, 가르침을 소홀히 했다. 그들은 예식을 의미 없는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고, 자녀들은 동작만 익힌 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랐다. 기적을 목격했던 세대가 죽자, 다음 세대는 진리에 무지해졌고, 무지는 배교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같은 방임이 널리 퍼져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들은 종종 성적, 운동, 음악, 진로 등 세상 일에는 힘을 쏟으면서, 정작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안전, 건강, 돈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면서, 영원한 문제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고 말한다. 그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방치일 뿐이다. 그들은 자녀를 오락, 야망, 자기중심 등 시대의 우상들에게 넘기면서, 그것에 맞설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 열매는 이스라엘 때와 똑같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주변의 신들을 섬기는 세대가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방임은 포로됨을 초래했다. 사사기 13장은 무거운 말로 시작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눈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수레바퀴가 다시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다. 백성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이제 블레셋이 지배권을 쥐게 된 것이다.

블레셋은 하찮은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안 평야를 따라 늘어선 강력한 도시 국가 연합이었고, 전쟁에 능했으며, 이스라엘이 여전히 주로 청동에 의존하던 때에 철기 사용을 지배했다. 그들은 오만하게 자기들의 신을 높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단지 군사적으로 억압받는다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이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 받은 백성이 우상숭배자들에 의해 짓눌려 있었다.

사십 년의 지배는 한 세대가 속박 속에서 나고 자라고 죽기에도 충분히 긴 세월이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그들에게 권위의 상징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가 아니라 블레셋의 군사였다. 과거 구원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패배의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다. 한 나라가 오랫동안 굴복을 받아들이면 결국 속박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죄는 항상 그렇게 작동한다. 죄는 마음을 길들여 포로 됨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하고, 자유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이 포로 됨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성경의 표현은 분명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블레셋이 강해진 것은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지배받는 것은 언약을 버린 데 대한 형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논리이다.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자는 결국 우상숭배자에게 지배당하게 된다.

사사기의 순환은 이스라엘의 실패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죄도, 압제도, 구원도 정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대적하는 민족들을 그 땅에 남겨 두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일으킨 반역을 작정하셨고, 또한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들도 작정하셨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 계획의 방해가 아니라, 그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의 죄는 실제였고, 실제로 심판받았지만, 그 죄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들의 반역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회개도 포함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결코 주권을 잃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일하시게 하신다.

동시에 이 순환은 하나님의 긍휼도 드러낸다. 하나님에게는 반복적으로 구원자를 세우셔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다. 한 사람의 사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고,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으며,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 순환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였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포로 상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위한 무대였다.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주도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된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오심을 예고하셨고, 그가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는 방식을 형성해야 한다. 그는 고립된 영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그의 생애는 순환 속의 또 하나의 회전이었고,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훈의 새로운 표현이었다. 그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그가 세워진 것은 백성이 무력하고, 압제당하고, 여호와를 버린 시점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증거였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다가온다. 사사기의 순환은 과거에만 갇혀 있지 않다. 가정과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동일하다. 자녀는 무지한 채 자라고, 사회는 우상숭배에 빠지며, 포로 됨이 뒤따른다. 우상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패턴은 동일하다. 돈, 권력, 명성, 자아가 우리 시대의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그들을 이 우상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한 세대 전체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의 우상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의 순환을 끊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원자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 가운데 공훈을 보이신다. 이스라엘의 포로 됨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압제 아래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다. 삼손의 시대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단 지파 출신의 사사였다. 때가 차매, 그

구원자는 여인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블레셋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포로 됨은 삼손의 구원을 이해하게 만들며, 삼손을 넘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게 만든다. 사사기의 순환은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낸다. 매번의 죄와 심판이 긍휼의 장을 마련한다. 매번의 포로 됨이 구원자의 필요를 드러낸다. 매번의 실패는 구원이 결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보여 준다.

### 3. 구원자의 탄생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굴복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백성은 다시 주를 떠났고, 주는 다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 반복되는 후렴은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철이 아니라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목을 짓눌렀다. 한 세대 전체가 이방의 지배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성인이 되었다. 기업으로 약속받은 땅은 압제자의 손아귀에 있었고, 거룩함을 위해 택한 백성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영적 속박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다. 그들은 주를 버렸고, 주는 그들이 섬긴 것에게 그들을 넘기셨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 죄와 압제의 순환이 영구한 상태처럼 굳어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의 탄생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도움을 구하는 외침도 없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심판 속에서 약속이 주어지고, 절망 속에서 생명이 선포된다.

단 지파 지역의 소라라는 마을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매우 무겁게 여겨지던 슬픔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자녀 없음은 개인적 고통일 뿐 아니라 공적인 수치였다. 자녀는 주의 축복이며 가문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있던 단 지파의 한 가정에서 불임은 그 민족 전체의 허무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속사 속에서 불임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상이 되었다.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낼 수 없는 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었다. 사라의 약속을 듣고 웃었으나 이삭이 태어났다. 리브가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야곱과 에서가 나왔다. 한나는 주 앞에 영혼을 쏟아 놓았고 사무엘을 받았다. 엘리사벳은 이미 노년에 이르렀으나 주의 길을 예비할 요한을 잉태했다. 이 모든 출생은 자연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마노아의 아내도 이 패턴 안에 서 있었다.

불임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한 약속의 계보는 전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는 왕조도 시작될 수 없었다. 늙은 부모에게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길도 준비될 수 없었다. 이 전환점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킨다. 구속은 인간의 의지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삼손의 출생도 이 연속선상의 또 하나의 표지였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군사 개혁이나 민족의 각성이 아니라, 공허 속에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다. 그녀는 환상을 구하지도 않았고 표징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늘이 그녀의 평범한 자리로 침입해 왔다. 사자는 말하였다.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즉시 불가능이 뒤집혔다. 그녀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너졌다.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군사적 천재성도 민족적 부흥도 아니라, 없던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것이었다.

사자는 또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다. 태에서부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나실인 서원은 보통 자발적이며 일시적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일정한 기간 주께 자신을 구별하기로 선택했고, 포도주를 삼가며,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고, 머리를 길러 헌신의 표로 삼았다. 그러나 삼손의 성별은 선택도 아니었고 일시적도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인되었고, 죽음까지 지속될 것이었다.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표시되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식단까지도 그 서원의 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런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의 성별에 참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함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삼손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삼손을 취하셨다. 그의 성별은 다가오는 구원이 이스라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임을 나타내는 표이었다. 거룩함은 개인을 넘어 가정을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킨다. 마노아의 아내는 장차 품게 될 아들 때문에 자신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종을 구별하고 계셨고,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소명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나실인 서원 자체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기다리는 삶을 뜻했다. 죽은 자에 가까이하지 않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패에 손대지 않는 삶을 뜻했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구별의 표를 몸에 지니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나실인에게 이것은 잠시 지속되는 헌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그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표가 되었다. 잉태에서 죽음까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주장된 사람이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지시를 구해 기도하였다.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사자를 다시 보내셨다. 마노아는 물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아이의 삶의 방식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자는 대답하였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가 지킬 것이니라.” 새로운 지시는 없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 충분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확증을 갈망하지만 길은 숨겨져 있지 않다. 그의 말씀 안에 열려 있다. 우리의 일은 끝없는 탐색이 아니라 순종이다. 마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선언된 말을 믿고 행하는 믿음이었다. 오늘의 부모들도 같은 시험에 직면한다. 그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침을 찾으면서, 성경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한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진리 안에서 자녀를 훈련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미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새 빛을 요구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마노아는 방문자를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나 사자는 말했다.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네가 번제를 준비하거든 주께 드리라.” 마노아는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의 이름을 묻는다. 그러자 대답이 왔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는 기이함이니라.”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렸다. 제단에서 불길  
하늘로 치솟을 때, 주의 사자는 그 불길 가운데로 올라갔다. 그 순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제야 마노아는 그 방문자의 위엄을 깨달았다.  
그는 떨며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말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를 받지도 않으시고,  
이런 말씀들을 보여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천사 이상을 드러낸다. 창조된 천사는 결코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후의 환상에서도 사람들이 천사 앞에 엎드리면 책망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자가 제물을 받고, 그 가운데로 올라가며,  
그들의 엎드림을 받으신다. 그는 ‘기이한 이’ 라는 이름을 지니셨는데, 훗날  
이사야가 메시아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 부를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이다. 본문은 이분을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한 말씀  
그 자체로 제시한다. 그는 삼손의 출생을 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심을  
예고하러 오셨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대비는 두드러진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나, 그녀는  
궁핍의 증거에서 추론했다. 그는 영광을 보고 심판을 생각했으나, 그녀는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를 결론지었다. 믿음은 영혼을 안정시키며, 계시를 위협이 아니라  
선물로 해석하게 한다. 그녀의 논리는 올바랐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면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아들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믿음은 남편의 두려움보다 강했다.

때가 되어 여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이는 ‘태양과 같은’  
이라는 의미로, 마치 이스라엘의 밤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솟아올랐다는 뜻처럼  
보였다. 아이는 자라면서 주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그의 능력 부여가 시작되었음을 뜻했다. 삼손의 소명은 비범했고, 그의  
힘은 체격이나 훈련이나 성격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함으로 난  
것이였다. 그가 사자를 찢고, 줄을 끊고, 원수를 치는 모든 일은 자연적 힘이  
아니라 신적 능력의 역사였다. 심지어 그의 성급한 선택들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마하네단에서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를 구별하셨다는 신호였다.

본문은 영이 그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움직이셨다고 말한다. 그 단어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충동, 아직 드러나지 않은 능력이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뜻한다. 아직 행동의 때가 오기 전, 하나님에 의해 움직임을 받는 젊은이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지만,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또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종들을 부르시고 빈손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명에 맞는 능력을 그의 영으로 공급하신다. 삼손에게는 비범한 힘이 주어졌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들에게는 지혜나 기술이나 예언의 말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졌다. 삼손을 움직이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은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신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수반된다. 삼손에게는 독특한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 영의 역사가 이제 교회의 공동 유산이 되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맡기신 구체적 사명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자녀가 주를 알고 그의 말씀을 믿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준비되도록 양육해야 한다. 때가 되면 영이 능력을 공급하신다. 참된 성공은 자연적 이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삼손의 출생과 성별은 자신을 넘어 더 큰 것을 가리켰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워진 그림자였다. 그의 탄생은 천사가 알렸고,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러했다. 그는 잉태 때부터 성별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절대적이며 죄가 없었다. 그는 영으로 능력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영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삼손은 구원을 “시작하도록” 세워졌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고 죽을까 두려워했다. 수세기가 지난 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게 하셨다. 삼손의 불임에서 난 탄생은 자연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힌 사건이었다. 삼손의 성별은

이스라엘 역사 안의 한 사명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영원하고 본질적이며 완전했다. 삼손의 영이 주신 힘은 블레셋 사람을 쳤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한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비교는 초점을 또렷하게 한다. 삼손의 이야기는 참된 구원자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소라에서의 탄생은 베들레헴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두 탄생 모두 하늘의 사자가 예고했고, 둘 다 어둠의 때에 일어났고, 둘 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임을 드러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 국면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삼손의 구원은 부분적이고 잠시였으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하나는 그림자요, 다른 하나는 실체이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고 우상 숭배는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삼손의 탄생으로 새벽빛이 비쳤다. 태에서부터 성별되고 영으로 능력을 받은 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한 아이가 역사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를 일으키셨고, 속박의 물결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었다.

#### 4. 사자와 수수께끼

삼손은 딤나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한 젊은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 돌아오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딤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의 부모는 말했다. “우리 친족 중에, 또는 우리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습니까? 왜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얻으려 합니까?” 그러나 삼손은 말했다. “그녀를 데려와 주십시오. 내 눈에 맞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설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삼손의 첫 번째 기록된 선택은 부모에게 모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과 딸을 이방 민족에게 주어서는 안 되었고, 우상 숭배로 끌려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통혼은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지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서원으로 표시된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그들은 믿기 어려웠다. 그들의 반대는 사소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밀어붙였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이야기의 서술자가 알려주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죄와 어리석음의 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과의 첫 대립이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마주 서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삼손의 요구는 죄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정해진 일이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사람의 죄까지 포함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의가 요구하는 것을 밝히지만, 두 가지는 동일하지 않다. 삼손은 명령을 어겨 죄책을 졌지만, 동시에 작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통해 진행되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작정하셨다고 해서 삼손이 무죄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죄라 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나, 사람은 책임을 지며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행하신다.

삼손과 부모 사이의 긴장은 많은 신자들이 아는 갈등을 드러낸다. 자녀가 성경에 거스르는 길을 고집할 때 부모는 슬퍼한다.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장하며 부모에게 항의하기도 한다. 둘 다 믿음의 시험이다. 어떤 가정은 아들이나 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려는 것을 보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반대한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부르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저지하며 안락함을 원한다. 두 경우는 다르지만 둘 다 마음을 드러낸다. 삼손의 부모는 반대함으로 옳았지만, 하나님이 삼손의 죄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불씨로 사용하시려 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죄와 어리석음의 표면만 보았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전개될 감추어진 목적을 보고 계셨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딘나로 내려갔다.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부모와 떨어져 있었고, 갑자기 한 어린 사자가 사납게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짐승은 아무런 경고 없이 뛰어올랐고, 그 울음소리는 공기를 가르며 두려움을 퍼뜨렸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사람을 넘어서는 힘으로 그를 채우셨다. 손에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지만 삼손은 사자를 붙잡아 찢어버렸다. 공격은 시작되자마자 끝났다. 그의 죽음이 되었어야 할 사건은 오히려 그 위에 임한 능력의 첫 징표가 되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는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

얼마 후 그는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왔다. 호기심이 생겨 그는 사자가 쓰러졌던 장소로 돌아갔다. 해가 뼈를 말렸고, 시체는 껍질처럼 오그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벌떼와 빛나는 꿀이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손으로 퍼서 걸어가며 먹었다. 그 맛은 달고 혀에서 풍부했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주었고 그들도 먹었으나,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승리는 죄로 바뀌었다. 나실인의 서원은 태에서부터 그에게 새겨져 있었다. 포도주는 금지되었고, 면도칼도 금지되었으며, 시체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가 시체 위에 몸을 굽혀 거룩하게 구별된 손을 넣어 죽음에서 나온 단맛을 맛보았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만졌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평범하게 대했다. 부모는 그가 준 꿀을 먹었지만 자신들이 부정을 함께한 줄은 몰랐다. 출처를 알고 있던 이는 삼손뿐이었다. 그의 서원은 피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더럽혀졌다.

삼손은 힘을 얻기 위해 영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보이지 않았다. 거룩함은 믿음과 경외가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것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자라난다. 시체에서 나온 꿀은 아직 그의 파멸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가리키는 표지였다. 이스라엘 민족도 종종 같은 일을 했다. 달콤한 것을 찾듯 우상을 뒤쫓아 죄의 일시적 즐거움에 속아 넘어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었다. 삼손은 그 역사를 축소한 모습이었다. 죽은 몸을 가볍게 만졌던 그의 행동은 우상을 가볍게 받아들이던 민족의 태도와 같았다. 꿀은 죽음에서 나왔고, 달아 보였지만 처음부터 더러웠다.

삼손은 내려가 그 여자와 말했고 그녀는 그의 눈에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결혼을 주선했고, 삼손은 신랑의 풍습에 따라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로 구성된 삼십 명의 동행들이 그에게 붙여졌고, 그들은 낮선 자들이었으며 그의 결혼 모임에 억지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잔칫집은 웃음과 자랑으로 가득했고, 포도주는 흐르고, 놀이가 이어졌다. 축제의 분위기 아래에는 경쟁의 기류가 숨겨져 있었다. 손님들은 그의 친구가 아니라 그를 경계하며 그의 힘을 측정하고 그를 모욕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었다.

잔치의 한가운데서 삼손이 일어나 말했다. “이제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칠 일 동안의 잔치 기간 안에 그 답을 알아맞히면 세마포 옷 삼십 벌과 옷가지 삼십 벌을 주겠다. 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그만큼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기꺼이 동의했다. 삼손이 말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 일 동안 그들은 머리를 짜내었지만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 내기는 단순한 오락 이상이었다. 세마포 옷과 옷가지는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수수께끼에는 자존심과 재산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맞히지 못했다. 비밀은 삼손이 경험한 개인적 승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짜증으로, 짜증은 분노로

바뀌었다. 넷째 날, 그들은 절박해져 삼손의 아내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지고 갔다.

“네 남편에게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우리라. 우리가 여기 왔는데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냐?”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왔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내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도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녀의 음성은 비난으로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삼손이 말했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녀는 계속 그를 압박했다. 잔치의 날마다 그녀는 울었고, 밤마다 그를 비난했다. 그녀의 말은 그를 점점 소모시켰다. 맨손으로 사자를 붙잡는 남자도 그녀의 눈물이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의 힘은 짐승을 이겼지만, 그녀의 끈질김이 그를 이겼다.

그녀의 눈물은 순진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충성을 묶어둔 사람들이 쥐여준 도구였다. 약점처럼 보였지만 전략이었고, 그를 지치게 하려는 계산된 압력이었다. 뱀이 하와를 속이고 그 말을 통해 아담을 파멸로 몰아간 것처럼, 같은 패턴이 딘나에서 다시 나타났다. 삼손은 사자를 찢었지만, 간청과 비난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공격에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짐승의 울부짖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적의 편에 선 자가 멈추지 않는 말에는 굴복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의 압력이었다.

마침내 그는 답을 말했다. 비밀은 그의 입에서 그녀의 귀로, 그녀의 귀에서 그녀의 백성에게로 흘러갔다.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동행들이 승리감에 차서 삼손에게 왔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인가?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가?”

삼손의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답이 도둑맞았고 아내가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 말로 아내를 조롱했고, 그녀를 적에게 명예에 씌워진 짐승처럼 취급했다. 그러나 빛은 남아 있었다.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의 분노는 폭발구를 찾았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 도시의 사람 서른 명을 쳐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의 답을 말한 자들에게 가져다주었다. 배신의 대가는 피로 치러졌다.

분노한 채 삼손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내는 그의 동행 중 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마치 그가 남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었다. 결혼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고, 기쁨의 연합이 되어야 할 것이 분노와 죽음, 배신으로 끝났다.

이렇게 그의 첫 번째 일련의 사건이 끝났다. 힘과 약함, 승리와 어리석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영으로 사자를 죽일 능력을 받았지만 달콤함에 유혹되어 서원을 더럽혔다. 그는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눈물에 굴복하여 비밀을 말해버렸다. 그는 분노로 서른 명을 죽였고 아내는 잃었다.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삼손의 순종이 아니라 그가 얽혀든 일들을 통해 나아갔다.

이 이야기는 깔끔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려 멈추지 않는다. 태에서부터 구별되어 능력을 받았지만 거룩함에 무관심하고 조종에 취약한 한 사람의 삶이 펼쳐질 뿐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무모함과 함께 있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군대를 이끄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분쟁 속으로 걸려들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바뀌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 그는 사자도 사람도 찢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여자의 간청과 시체의 꿀, 자신의 성급한 분노로 인해 무너졌다. 힘과 약함이 나란히 있었고, 믿음과 어리석음이 함께 걸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승리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그의 일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자와 꿀, 수수께끼와 배신, 승리와 수치를 모두 정하신다. 삼손은 거룩함의 본보기가 아니라 믿음이 인정된 사람이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의 삶도 본보기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셈하셨다. 결함 있는 힘을 통해 시작된 구원은, 완전한 구별과 온전한 경외, 결코 약해지지 않는 힘을 가진 더 큰 구원자를 가리켰다.

삼손은 분노로 불타며 댐나를 떠났다. 그의 서원은 손상되었고, 결혼은 사라졌으며, 적들은 쓰러졌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 돌아갔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첫 타격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곡식은 불타고, 전사들은 쓰러지며, 그들의

주들은 영의 능력을 지닌 남자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약함과 뒤엉킨 믿음, 깨어진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방식으로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5. 여우들과 나귀 턱뼈

어느 날, 밀 추수 때가 되어 삼손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보려고 딴지로 돌아갔다. 그는 장인에게 아내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으나, 장인은 그를 막았다. 결혼 잔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삼손이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여, 이미 그녀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린 것이다. 모욕을 덜어보려고 그는 대신 어린 딸을 내세우며, 오히려 그녀가 더 아름답다고까지 말했다.

이것은 굴욕의 장면이었다. 아내의 배신을 당한 후 분노하여 결혼 잔치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삼손은, 분노의 열기 속에서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화가 가라앉은 상태였고, 화해의 뜻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거절이었다. 아내는 사라졌고, 그의 명예는 상처를 입었으며, 결혼의 거룩함은 편의에 따라 짓밟혔다. 삼손의 예물도, 그의 소망도 문 앞에서 거부당했다.

그의 대답은 체념이 아니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해도 죄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큰 해를 끼치겠다.” 이는 복수의 언사였지만,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처음부터 천사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맞서기로 작정하셨고, 삼손의 삶을 그 도구로 선택하셨다. 개인적 모욕이 민족적 심판의 불씨가 된 것이다. 가족 분쟁처럼 보이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삼손은 나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았다. 그 일은 엄청난 수고였을 것이나, 그를 움직이게 하신 영이 지혜와 힘을 주셨다. 그는 여우들을 꼬리와 꼬리를 묶어 torches 를 사이에 매달고 불을 붙여 밭으로 보냈다. 추수할 준비는 완전히 되었고, 곡식 이삭은 높이 자라 마르고 단단했다. 포도송이는 무겁게 늘어졌고, 올리브 나무들도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풍요한 들판 속으로 여우들이 불길을 끌며 광란하듯 뛰어다녔다. 불꽃은 밭 전체로 퍼져나가, 밀과 포도와 올리브를 단 하룻밤 만에 태워버렸다. 작물을 구하려고 달려온 농부들은 사방에서 튀어오르는 불꽃에 둘러싸였다. 연기 냄새, 타오르는 이삭 소리, 절망의 울부짖음이 온 땅을

메웠다. 풍요는 기근으로 바뀌었고, 밤바람은 불탄 들판의 굉음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블레셋의 힘의 뿌리를 겨냥한 복수였다. 그들의 부는 사라졌고, 땅의 열매에 대한 자신감은 재가 되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군대가 아니라 짐승을 사용해 불을 내리셨고, 공성 무기가 아니라 꼬리에 묶은 횃불로 심판하셨다. 이 심판은 그들의 교만을 조롱했고, 그들이 믿던 것은 연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번영의 상징으로 자랑했다. 곡식이 가득한 들판과 넘쳐흐르는 포도즙 틀은 그들의 지배를 드러내는 표식이었다. 그러나 불이 번지자 그들의 부는 단 하룻밤 만에 연기로 변했다. 풍요를 의지하던 농부들은 그을린 땅을 파헤치며 헛되이 애썼고, 곡식은 재가 되어 희망마저 함께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손실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 앞에서의 치욕이었다. 다곤은 그들의 곡식을 구하지 못했고, 그들의 우상들도 불을 끄지 못했다. 그들의 종교는 무력함을 드러냈고, 그들의 자랑은 공허함을 드러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분노와 여우 삼백 마리를 통해 그들을 발가벗기듯 드러내셨고, 사람의 손으로 얻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대적하실 때 언제나 이와 같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힘에 기대어 원수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들판의 여우로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벌레로 경제를 흔들고, 우박으로 군대를 무너뜨리고, 꿈으로 왕을 뒤흔드신다. 작고 멸시받는 것을 취하여 무기로 삼으신다. 인간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 했고, 딘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그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의 보복은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불태워 죽였다. 이는 과거 결혼 잔치에서 삼손을 배신할 때 그 여자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운명이었다. 그녀는 생명을 지키려고 타협을 선택했지만, 배신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녀가 두려워 굴복했던 위협이 결국 그녀를 삼켜버렸다.

그녀의 타협은 헛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복해 자신을 지키려 했고, 남편을 배신해 생명을 이어가려 했으나, 지키려 했던 것을 모두 잃었다. 잘못된 계산은 불로 끝났다. 진리를 안전과 교환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불신에 편을 들어 살아남으려 하는 것은 도망치려는 파멸을 스스로 껴안는 것이다. 안전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충성 안에만 있다.

삼손의 분노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말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 그의 말은 피의 맹세와 같았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였다. 성경은 그 공격을 잔혹하고 숨 돌릴 틈도 없는 맹렬한 공격으로 묘사한다. 다시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처럼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본다. 삼손의 동기에는 분노와 슬픔과 모욕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를 일으키셨다.

그 후 삼손은 에탐 바위 굴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의 후퇴는 잠시뿐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굴복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유다 땅으로 올라와 레히 근처에 진을 쳤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삼손에게 모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달래려 했다. 유다 사람 삼천 명이 굴로 내려갔으나, 그들의 목적은 구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은 마음을 드러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들은 압제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저항하는 삼손을 비난하며, 마치 믿음이야말로 죄인 것처럼 대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고, 외교가 아니라 불신이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압제자를 더 두려워했다. 자유의 위험보다 사슬의 안정함을 더 좋아했다. 삼천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치욕을 더 크게 할 뿐이었다. 몸은 많았으나, 그들의 말은 영혼이 텅 비었음을 증언했다. 군대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구원자를 결박하는 간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삼천 명이 한 사람을 묶는 모습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혐오스러웠어야 했다. 그들은 구원자를 묶는 밧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킨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줄을

원수에게 넘기고 있었다. 유다의 수치는 블레셋을 두려워한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데 있었다. 그들은 믿음보다 사슬을, 용기보다 질서를, 명예보다 생존을 선택했다. 그들이 신중이라고 부른 것은 하늘을 향한 반역이었다. 그들이 묶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사슬을 끊으려고 세우신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를 더 단단히 묶어버렸다. 그 순간, 그들의 불신은 블레셋의 위협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자기 민족에게 넘겨졌다. 삼천 명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결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 스스로 때리기는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넘기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조는 너무나 뚜렷하다. 믿음의 사람은 한 명, 비겁한 자들은 삼천 명.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의 모습이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도, 선지자들을 거부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을 때도 이와 같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 반역의 표식이다.

Understood. I will not insert any questions, I will not speak Korean outside the translation, and I will not leave any English fragments.

I will reproduce your final Korean sentence, complete the paragraph, and continue translating to the very end of the chapter in clean, natural Korean.

Here is the full corrected continuation:

□

지금도 같은 불신이 드러난다. 믿음, 치유, 기적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불신자들은, 삼손에게 등을 돌린 유다와 같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조롱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하늘의 구원보다 세상의 인정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들이 신중함이라 부르는 것은 배신이며, 분별이라 부르는 것은 반역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서는 대신, 그들은 의심과 비난의 말로 그들을 묶어 버리고 멀리 속으로 넘겨 버린다. 불신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구원자를 문제로 여기고, 행복을 해결책으로 삼는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갈 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밧줄은 불에 탄 삼베처럼 끊어져 버렸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새 나귀의 턱뼈를 움켜쥐고, 그것으로 천 명을 쳐 죽였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 거칠고 원시적인 뼈를 손에 든 한 사람이, 병사들의 줄을 마주하고 서서 무리를 한꺼번에 쓰러뜨리고 있었다. 전장은 소용돌이처럼 움직였고, 무기가 부딪히는 쇳소리는 턱뼈가 두개골에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에 묻혔다. 수가 많다는 자신감으로 달려드는 자들은, 매번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발걸음이 쳐올린 먼지가 공중에 퍼지고, 땅은 곧 피로 미끄러워졌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의 종의 손에 들린 턱뼈 하나가, 적들의 칼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하나님은 힘이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보이신다. 그 힘은 무기에도, 사람의 수에도, 전략에도 있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유다가 믿지 못했던 것을 삼손은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충분하다.

학살이 끝나자 삼손은 승리의 말을 외쳤다. “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나귀의 턱뼈로 천 명을 죽였다.” 그의 말은 조롱이 섞인 말장난이었고, 패배한 자들을 비웃는 소리였다. 그는 쓰러진 시체 위에서 웃었으니, 하나님께서 적들의 힘을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에 목마름이 몰려왔다. 승리는 곧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삼손은 주께 부르짖었다.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종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목말라 죽어 할레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야 합니까?” 그의 기도에는 믿음과 어리석음이 함께 있었다. 그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지만, 원망조의 말로 경외 없이 요구하듯 말하였다. 믿음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과 같지 않지만, 그런 요구조차 불신보다는 낫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레히의 오목한 곳을 갈라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삼손은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은 삼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 기대와 섞여 있었어도, 믿음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 기도는 삼손의 결함도

드러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확신은 가졌지만 경외는 없었다. 이 경외의 부족이 그의 성품에 깊게 자리한 치명적 결함이었다.

유다의 배신과 레히에서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거짓을 폭로한다. 사람들은 힘이 팀에 있고, 능력이 무리에 있으며, 개인은 홀로 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공동체 영성, 교회 출석, 팀 사역을 칭송하며, 숫자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부정한다. 이것은 지혜처럼 보이는 불신이다.

삼천 명의 유다 사람들은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인 삼손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팀'은 팀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겁쟁이들의 무리는 유익은커녕 해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희망을 짊어진 사람을 스스로 적에게 넘겨 버렸다. 그들의 숫자야말로 수치였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와 같다. 출석 자체를 목적처럼 여기고, 자신의 네트워크와 운동을 자랑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무리는 헛것이다. 홀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보다 낫다. 권력자 앞에 홀로 서는 바울이 타협하는 회의보다 낫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지, 숫자에 기대지 않는다.

하나님은 종종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온 세상이 조롱할 때에도 노아는 믿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떠나는 데 복종하였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마주하여 혼자 서 있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혼자서 말했다. 바울은 말하였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서지 않았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해 세상의 자랑을 무효하게 하신다.

이것이 교제가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다. 협력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이며,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숫자에 의지하는 믿음은 어리석다. 서로에게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을 때, 거기에는 믿음이 없다. 그

순간 교회는 삼손을 결박한 유다와 같다. 팀워크가 우상이 되면, 서로의 인정이 진짜 믿음을 대신하고, 안전하다는 착각만을 준다. 단체 예배와 집단 사역을 숭배하는 경향은 성경이 아니라 세속의 이론에서 온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지, 군중에 대한 의존이 아니다.

삼손의 레히에서의 승리는 이 거짓을 꾸짖는 증거이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결박당한 채,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천 명을 죽였다. 그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동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팀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영에서 나왔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무리는 믿음 없는 자들뿐이었으므로 진정한 공동 예배는 없었고, 있었던 것은 집단적 타협과 반역뿐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를 믿음으로 이방 군대를 물리친 자로 기억한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비겁하고 믿음 없는 유다를 드러내셨는데, 삼천 명이 구원자를 배신한 반면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은 군대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교만이 세상이 멸시하는 것 앞에서도 서지 못함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삼손이 기도했을 때, 거기 entitlement 의식이 섞여 있었어도,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자신의 부르심과 약속에 신실하셨다. 여우들과 턱뼈의 이야기는 단순한 violence 가 아니라, 불신에 맞서는 믿음,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부족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이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생애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참되었다. 그는 백성이 서려 하지 않았던 자리에 섰고, 두려움에 굴복한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 그래서 그는 기억된다. 들판을 불태운 여우들, 군대를 쓰러뜨린 턱뼈, 움푹 패인 곳에서 흘러나온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증언한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 6. 가사의 문

레히에서의 학살 이후, 삼손의 삶은 곧바로 새로운 운명적 장면으로 이어졌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의 동족조차도 마지못해 그를 받아들였다. 이야기는 이제 해안 근처에 서 있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가사로 향한다. 높은 성벽과 문은 안전을 상징하고 있었다. 가사는 다섯 개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교역로를 지키는 감시자와 같았고, 힘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항의 도시였다. 상업과 부로 알려진 곳이며, 권세와 자만이 자리한 곳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사는 그들의 지배를 상징하는 요새였다. 가사를 치는 것은 그들의 통치 중심을 치는 것과 같았다. 삼손은 이 도시로 들어갔고, 이야기는 그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삼손은 가사로 내려가 한 여인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야기는 이를 부드럽게 처리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의 죄를 지적할 뿐이다. 티므나에서처럼 언약의 모습이라도 갖춘 결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방탕이었고, 거칠고, 나실인으로서 마땅치 않은 행동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 구별된 사람이, 오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인의 침상에 들어갔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평범한 자가 되었고, 구원자는 죄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았다. 이것은 자신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긴 사람의 모습이었다.

삼손은 이전보다 더 깊이 블레셋의 영토 안으로 내려갔다. 그들의 도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니었다. 사사로서의 그의 부르심은 적의 요새에서 그들을 맞서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방탕을 위해 가사에 들어갔다는 점이었다. 적의 교만을 치는 대신, 그는 창녀를 찾았다. 심판의 장이 되었어야 할 곳이 타협의 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포 아래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이 자신의 서원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구별된 자가 적의 심장에서 자신을 더럽혔다. 그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불성실을 반향하고 있었다. 백성은 거짓된 예배에 자신을 내주었고, 그들의 구원자는 가사의 창녀에게 자신을 내주었다. 이는 심각한 수치였고, 그의 부르심과의 대조는 명백했다.

그러나 삼손은 여전히 가사에 있었고, 가사는 혼란에 빠졌다. 소문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삼손이 왔다.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났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채찍이었다. 그는 여우들로 그들의 밭을 불태웠고, 턱빠로 그들을 쳤으며, 그들의 힘을 조롱했던 사람이다. 그가 성문 안에 있다는 것은 악몽이 거리 위에 누워 있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는, 그들은 생각했다. 드디어 붙잡았다. 도시는 그를 둘러싸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새벽이 되면 그를 붙잡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멸하려 했다.

그들은 즉시 달려들지 않았다. 아마도 그가 보여준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인내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밤새도록 잠들게 두라고 그들은 reasoning했다.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의 매복의 힘 전체가 그에게 떨어질 것이다. 계획은 확실해 보였다. 아침이면 적은 결박되거나 죽을 것이고, 가사는 승리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웃음과 속삭임은 그 밤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삼손을 백성 앞에 끌어내어, 블레셋의 공포였던 사람이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장면이 그들의 상상 속에 가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무지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들은 성벽이 주의 영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새벽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한밤중에 그는 일어났다. 그의 생각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시각만으로도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그는 위험이 짙어지는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밤으로 걸어 나갔고, 몰래 빠져나오지 않았다. 적이 자신을 가두었다고 생각한 도시의 문으로 당당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

가사의 문은 손으로 밀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다. 나무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이었고, 성벽에 깊숙이 박힌 기둥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다. 고대 세계에서 성문은 도시 방어 of 자랑이었다. 불에도 견디도록, 공격 기계에도 버티도록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졌다. 쇠 막대기로 단단히 고정되었고, 빗장으로 잠겼으며, 망루로 보강되었다. 그것은 블레셋의 힘, 그들의 방어의 자랑, 그들의 도시가 뚫리지 않는다는 상징이었다. 이런 문은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야 고정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군대의 공격을 버티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삼손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문 전체를 뽑아버렸다. 기둥도, 가로장도, 문짝도 모두 그의 어깨 위에 올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한 사람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 그것을 근처에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그 문을 멀리까지 운반했으며, 삼십에서 사십 리에 이르는 먼 길 끝에서 헬브론을 향한 산에 이르렀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하나님의 힘이 그를 붙들었다. 가사의 자랑과 방어는 단 하룻밤에 제거되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드러났고, 그들의 요새는 조롱받았으며, 그들의 힘은 수치를 당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견고한 도시라도 그가 능력을 주신 사람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본문에서는 몇 구절로 짧게 기록되었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다. 삼손은 그날 밤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실제였다. 그는 창녀에게 갔고, 그의 선택은 서원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 믿음도 실제였다. 그는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두 손으로 가사의 힘에 맞섰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죄는 그의 것이었지만, 힘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둘 다 참되었고, 둘 다 동시에 일어났으며, 둘 다 주의 손 아래에 있었다.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아침이 되면 블레셋은 분노했을 것이다. 그들의 매복은 수치가 되었고, 그들의 힘은 조롱받았으며, 성문은 적의 땅에서 전리품처럼 드러났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사는 건재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에게 맞서 설 수 있는 요새는 없었다. 삼손이 가사의 문을 옮겼다면, 어느 적이 성벽 뒤에 안전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성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다. 그것은 안전의 상징이며, 안전과 위험의 경계이며, 도시의 힘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적 앞에서 별거벗겨지는 것과 같다. 가사는 단 하루 밤에 성문을 잃었다. 이는 포위 공격도 아니었고 군대의 공격도 아니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이 한 일이었다. 마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방어에 손을 뻗어 그것을 무효로 하신 것 같았다. 그 수치는 완전했다. 누구도 그 빈자리와 틈과 수치를 보지 않고 가사의 성벽을 바라볼 수 없었다. 힘을 자랑하던 도시는 약함을 드러냈고, 온 이스라엘이 그 표징을 보았다.

삼손에게 그 밤은 경고이자 격려였다. 그의 죄는 용서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살아서 떠났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손상시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존하셨다. 죄는 사람을 더럽히고, 파멸로 이끈다. 창녀에게 간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 어리석음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그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구원자를 속박으로 더 가까이 끌어간다. 가사는 끝이 아니었지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였다. 그의 힘은 남았으나, 그의 약함도 깊어졌다.

그러나 자정에 행동한 그 믿음은 칭찬받았다. 삼손은 성문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 그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다. 적의 자부심이 집중된 곳으로 걸어가 그것을 뺏아버렸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 수백만이 모인다 해도, 언약을 깨뜨린 삼손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는 그들보다 뛰어났다. 그의 삶이 타협으로 더럽혀졌어도, 그의 믿음은 비난하는 모든 이들보다 높았다. 성경은 후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기록한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신뢰했기에 정복했다. 그의 삶에 얼룩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며,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죄는 짐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해도 마찬가지다. 가사의 창녀는 그의 인생에 오점으로 남았다. 그것은 그의 부르심을 더럽히고, 그의 성별을 배반했다. 그가 그때 회개했다면, 그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고, 타협은 더 깊어졌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거룩에 의존하지 않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사의 성문은 하나님의 힘의 표장이었고, 가사의 침상은 삼손의 약함의 표장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함정이 확실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그들의 계획은 무너졌다. 믿음의 사람이 행동했고, 하나님의 힘이 그를 세우셨다. 적에게 둘러싸일 때,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라. 그의 힘은 사람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의 영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헛어버리신다. 삼손은 흠 많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은 여전히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는 더 큰 일을 예표한다. 삼손은 문을 산으로 옮겨 가사에 대한 승리의 표징을 세웠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 자체를 열어젖히셨다. 삼손의 행위는 적을 모욕하는 장면이었으나,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다. 삼손이 어깨에 나무와 쇠를 짊어졌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삼손은 가사를 욕되게 했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폐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헬브론을 향한 산은 표징이었고, 갈보리는 성취였다.

삼손의 불완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을 가리킨다. 삼손이 헬브론의 산으로 옮긴 것을,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골고다로 옮기셨다. 삼손이 잠시 적을 조롱했다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모든 적을 이기셨다. 가사가 아침에 일어나 성문의 사라짐을 본 것처럼, 세상은 사흘째 되는 아침에 무덤의 돌이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가사의 문은 뿔뿔히 사라졌고, 죽음의 문은 산산이 부서졌다. 삼손은 한 도시를 낮추었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적을 멸하셨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룻밤 쇠를 짊어졌고, 영광의 주는 끝까지 죄를 짊어지셨다.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소렉 골짜기로 이어지며, 그곳에는 들릴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사의 문은 여전히 기념물처럼 남아 있다. 그것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으나 서원을 소홀히 했고, 죄 가운데 있으나 믿음으로 특징지어진 인물임을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심에서 자비를 나타내시며, 목적을 이루심에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그것은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맞서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죄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약하게 하며 파멸로 끌어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삼손은 힘을 지닌 채 가사를 떠났으나, 이야기는 그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현실이었지만, 그의 죄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힘은 적을 당황케 했지만, 그의 타협은 곧 그를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가사는 한밤의 승리이자 경고였다. 문은 헬브론으로 옮겨졌지만, 들릴라의 그림자는 이미 이야기 위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 7. 들릴라

삼손은 가자의 성문을 어깨에 메고 언덕 위에 세웠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굴복시킬 수 없던 그 남자가 도시의 방어를 조롱하며 그들의 힘을 수치로 바꾸는 모습을 분노 속에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함정을 아무 상처 없이 빠져나갔고, 여전히 나실인이었으며,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입었으며, 여전히 그들의 군대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기록이 가자에서 소렉 골짜기로 옮겨갈 때, 이야기는 힘의 위업에서 느리게 진행되는 유혹의 과정으로 전환된다. 삼손은 순수한 힘으로 블레셋의 여러 성읍을 모욕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은으로 살 수 있는 충성을 가진 한 여인의 품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소렉 골짜기는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역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들릴라를 만났고, 본문은 단지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고만 말한다. 이것은 가자의 창녀와의 순간적인 방종과는 달랐다. 그의 애정은 그녀에게 자리 잡았고, 그의 삶은 그녀의 존재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한때 블레셋의 발을 불태우고 군사들을 죽였던 그 남자가, 곧 자신을 배신할 여인의 무릎에서 쉬기를 바랐다. 전장에서 맹렬하던 그의 마음은 그녀 앞에서 부드러워졌다. 그 애정은 치명적인 눈멀음으로 이어졌다.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는 우상이 된다.

블레셋의 다스리는 이들은 그들의 기회를 보았다. 그들은 들릴라에게 와서 제안을 내놓았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어 그를 자신들의 손에 넘기기만 한다면, 각 통치자가 은 천백 세겔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액수는 엄청나서 그녀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보장할 만한 것이었다. 이것은 민족의 분노에 의해 강요되었던 딤펀의 여인 경우와 달랐다. 들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탐욕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남자의 사랑을 은과 바꾸려 했다. 배신이 이전에도 삼손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 배신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더 차가운 배신이었다.

들릴라는 조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큰 힘의 비밀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굴복시킬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 말 자체가 그를 놀라게 했어야 했다. 여자가 해를 끼치려 할 때는

많은 경우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삼손은 그녀에게서 떠나지도 않았고, 관계를 끊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요구를 장난처럼 다루며, 자신의 속임수로 대답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시위 일곱 줄로 자신을 묶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활시위로 그를 묶었고, 남자들은 매복해 있었다. 그녀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하고 외치자, 그는 불길 가까이에 둔 실처럼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그때 그는 그녀의 질문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시험했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입증했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도 있었다. 눈앞의 위험을 위험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았고, 그녀는 다시 압박했다. “당신은 나를 웃음거리가 되게 했어요.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요.” 그는 새 밧줄이면 자신을 가둘 수 있다고 했다. 그녀가 다시 시도할 때마다, 그는 또다시 자유로워졌다.

시도할 때마다 증거는 쌓여 갔다. 그녀가 묻고, 그가 거짓으로 대답하고, 그녀가 그대로 행하면, 그는 묶인 것을 찢어버렸다. 이런 반복 안에서 무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삼손은 무지한 것이 아니었다. 방종한 것이었다. 그는 배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용인했다. 그는 그녀의 계락을 놀이처럼 다루었고, 떠나려 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위험을 직면하려 하지 않았다. 블레셋 군대가 그를 묶을 수 없었던 것을, 들릴라가 그 집요함으로 묶어버렸다.

들릴라의 의도가 거둬 드려났음에도 삼손이 그녀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은, 사람의 영혼 한 부분의 상처가 다른 부분의 명료함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녀의 배신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밧줄을 보았고, 그녀의 외침을 들었고, 매복한 자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는 기색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머물렀다. 아마 거둬된 거절로 이미 깊이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반자를 원했을 것이다. 그는 부모에게 오해받았고, 첫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동족에게 넘겨졌다. 다시 버림받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배신을 참아냈다. 수천 명 앞에 홀로 서던 용사가, 사랑에서 홀로 선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이런 방종은 삼손의 믿음이 참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왜곡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는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는 헌신을 가볍게 여겼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의 확신은 진정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에 무모함으로 변했다. 그를 파멸시킨 것은 그녀의 계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그의 마음이었다.

이 결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가로지르는 균열과 같았다. 그는 사자도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말에는 굴복했다. 댐나에서 그의 신부는 눈물로 그를 압박하며,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을 미워한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를 지치게 해 결국 비밀을 말하게 했고, 그의 원수들은 승리했다. 이제 들릴라도 같은 무기를 사용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내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나요? 당신은 나를 조롱했어요.” 그 비난은 날카로웠고,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찔렀다. 그는 성문에서 군사들을 견뎠지만,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는 견딜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다.

마귀는 종종 이 방법을 선택해 왔다. 폭력은 실패할지라도, 말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군대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뱀은 하와를 압박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비틀고, 의심을 불순종으로 바꾸었다. 하와는 아담을 압박했고, 그는 속지 않았음에도 굴복했다. 들릴라는 삼손을 압박했고, 그는 그녀의 의도를 알면서도 굴복했다. 계산된 압력으로 반복되는 말은 죄사슬보다 강하게 사람을 묶는 올무가 될 수 있다. 조종은 악한 영의 도구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평안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강하지 않다면, 결국 사람은 멈추지 않는 그 목소리에 무릎 꿇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는 날마다 그를 압박했고, 삼손은 지쳐 갔다. 성경은 여기에서 엄숙한 단순함으로 말한다. “그의 영혼이 죽을 만큼 괴로워졌다.” 그는 그녀의 요구를 장난처럼 다루고, 반쯤 진실 반쯤 거짓의 대답을 엮었지만,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실패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적된 허용과 도망치지 않으려는 태도의 결과였다. 마침내 피로가 그를 이기자, 그는 진실을 말했다.

“내 머리는 한 번도 삭도가 대지 않았소. 나는 태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요.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요.” 그는 근육이나 훈련을 말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말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서원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뿌리 내린 소명을 나타내는 외적 표식이었다. 그 표징을 내어주는 것은 그의 헌신의 거룩함을 짓밟는 것이었다. 힘은 언제나 여호와와 영에게서 왔지만, 그 영은 헌신의 표징과 함께 역사했다. 이것을 밝힌 순간, 삼손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한 거룩한 표식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그의 머리카락에 연결하셨는가? 그 표징 자체에는 자연적 힘이 없었다. 군대를 쓰러뜨린 것은 케라틴의 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다. 깎이지 않은 머리카락은 증거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기억이었다. 하나님은 능력과 상징을 함께 두심으로써, 헌신이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다. 서원은 삶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일상 속에서 지니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야 했다. 머리를 깎는 것은 이를 명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 삼손이 이것을 들릴라에게 밝힌 것은, 단순히 비밀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징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다. 이 멸시는 머리카락을 잃은 것보다 더 그의 파멸의 길을 열었다.

들릴라는 그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블레셋의 통치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시 오라고 재촉했다. 그들은 은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혀 잠들게 했고, 신뢰의 자세는 배신의 도구가 되었다. 그가 자는 동안 한 남자가 그의 일곱 가닥 머리털을 깎았고, 나실인의 헌신의 표시는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다시 외쳤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그는 잠에서 깨어, 이전처럼 일어나려 했다. 싸울 준비를 하고, 묶인 것을 끊을 준비를 하고, 아스글론에서도 레히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서려 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전쟁에서 그에게 힘 있게 임하던 영은 떠났다. 힘은 사라졌다. 머리카락이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던 삼손은, 이제 그 교만의 대가를 알게 되었다.

삼손의 비극은 그리스도의 헌신과 나란히 놓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두 사람 모두 태어나기 전에 사랑받았고, 구원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으며, 은으로 배신당했다. 그러나 삼손이 굴복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건뎔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께 압박을 가했으나, 예수는 성경으로 답했다. 원수들이 동산에서 압박했으나, 예수는 간절히 기도했다. 고발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압박했으나, 예수는 자신의 고백을 굳게 지켰다. 그는 집요한 말에도,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삼손은 한 여인의 지속적인 압박에 무너졌지만, 그리스도는 지옥의 모든 분노를 이기셨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계보 속에서 모든 구원자가 약함을 보였으나, 참된 구원자는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하기 위한 준비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았다. 그들은 그의 눈을 뽑아, 과거에 수백의 원수가 쓰러지는 것을 보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가자의 감옥에서 짐승처럼 곡식을 가는 일을 시켰다. 한때 그들의 수확을 불태웠던 그가, 이제는 그들의 멍돌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힘은 사라지고, 시력은 사라지고, 자유는 사라지고, 군대가 두려워했던 그 남자가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삼손 몰락의 깊이다. 그는 전장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타협으로 무너졌다. 군대의 힘이 아니라, 조종의 지속으로 쓰러졌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기에, 그는 헌신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잃었을 때 영이 떠난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냉정한 진리를 드러낸다. 가장 강력한 외적 은사도 헌신을 멸시하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 용기와 재능과 성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들은 교만의 연료가 될 뿐이다. 삼손은 믿음을 가졌기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경외심이 부족했고, 그 부족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 경외심 없는 믿음은 사람을 행동에서는 대담하게 만들지만, 헌신에서는 부주의하게 만든다. 참된 헌신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붙잡는다.

삼손의 눈멀음은 육체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살아온 내적 눈멀음의 외적 표시였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했다. 성령의 힘을 보았지만, 자신의 서원의 심각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싸워야 할 원수는 보았지만, 스스로 용인한 올무는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사람들에게 의해 제거되었지만, 그의 시야는 오래전부터 어리석음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태로부터 그를 구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헌신의 표징이 돌아왔다. 감옥에서, 눈멀고 묶여 있는 삼손은 자유 속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치로 떨어지는 경험은 그의 유산을 결정지을 믿음의 행동을 위한 길을 준비했다.

지금 이야기는 가자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의 모습에 그를 남겨두고 있다. 그는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힘을 잃고, 시력을 잃었다. 그의 몰락은 완전했다. 그러나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치를 통해 믿음이 다시 말할 무대가 마련되었다. 조종에 의해 무너진 사람은, 침묵의 성찰과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회복에 앞서, 기록은 한동안 그의 몰락의 어둠 속에 머문다. 헌신을 멸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종의 말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달리지 않을 때 어떤 파멸이 찾아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 8. 영웅의 귀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놋 쇠사슬로 묶었다. 그들은 그를 가사로 끌고 가서 감옥에서 곡식을 맷돌로 갈게 하였다. 사자를 찢고 군대를 흩어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짐승의 노동으로 떨어졌다. 들판에서는 감히 맞서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쇠사슬에 묶인 그를 조롱했다. 그들은 그의 힘이 꺾였고 그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삼손을 끌고 다니며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증거라고 자랑했다.

가사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로, 그들의 자부심과 힘의 상징이었다. 삼손은 전리품처럼 그곳으로 끌려갔다. 그는 한때 이 도시의 거대한 성문을 어깨에 메고 나가 그들의 요새 한가운데서 수치를 안겨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도시가 그가 실명하고 묶여서 맷돌 앞에 굶어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한때 그들을 떨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처럼 끌려 다니며 끝없이 원을 그리며 그들의 곡식을 갈고 있었다. 그가 가사에서 거둔 승리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 광경 앞에서 지워져 버린 듯했다.

감옥에서의 하루하루는 잃어버린 것의 상기였다. 삼손은 맷돌이 빼적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얼굴에 가루 먼지가 날리는 것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비틀거렸다.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이 계속되었고, 그의 삶 전체가 허무로 축소된 것 같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으나 우상에게 종이 되어 헛되이 수고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포로됨은 개인의 수치일 뿐 아니라 민족의 치욕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던 사사가 이제 감옥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가사에서 조롱당하는 그의 모습은 곧 그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다.

수치는 삼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패배로 보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고, 그들의 승리를 다곤에게 돌렸다. 그들에게 삼손의 실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신호였다. 구원자의 몰락은 곧 그들의 우상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들의 조소는 삼손을 향한 만큼이나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몰락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모욕하기 위해 살려두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은 선택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올 도구를 보존한 셈이 되었다. 그들이 그에게 쇠사슬을 채웠어도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는 없었다. 그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어도, 삼손은 눈이 멀었을 때보다 더 분명히 보았다. 그의 소명을 끝낸 것처럼 보였던 그 고통은 오히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에 그를 세웠다.

사사기의 기록자는 그러고 나서 아주 간단한 한 줄을 덧붙인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의 헌신의 상징은 배신 가운데 잘려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시 돌아왔다.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서원의 표시였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표였다. 삼손이 여러 방식으로 그 서원을 어겼다 해도, 그 표는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은 인간의 실패로 끊을 수 없다.

그 작은 기록은 감옥 안에서 들린 자비의 속삭임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보았다. 세상은 삼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졌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표는 그 반대를 증언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분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언자들은 귀환을 약속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 회복되었다. 삼손 역시, 가사에서 눈이 멀어 맷돌을 돌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삼손의 머리털과 블레셋의 우상들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었다.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랐지만, 우상들은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한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거기에는 회복이 없다. 다곤은 팔다리를 다시 자라게 하지 못하고, 무너진 신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며,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한다.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이 죄가 파괴한 것을 회복하신다.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실패보다 위대하다는 표였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억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큰 죄를 범한 후 절망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영원히 제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버림받고, 실격되고, 소망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선물을 거두지 않으신다. 징계는 엄할 수 있지만 파멸은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던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들의 조롱 아래 보이지 않게 자라던 것은, 다가오는 심판의 표였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큰 축제를 위해 모였다. 그들은 다곤의 신전에 모여 제물을 바치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외침은 돌벽에 메아리쳤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군중이 늘어나자 그들은 다시 외쳤다. “이 땅을 황폐하게 한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다곤의 승리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여호와의 작정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포로됨을 자신들의 신의 승리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장소에 모아 심판하기 위해 이끄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히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고 계셨다.

신전은 거대했고, 거대한 돌기둥들 위에 세워져 있었다. 뜰에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었고, 지붕 위에도 또 다른 수천 명이 서 있을 수 있었다. 공기는 향연의 연기와 예배자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통치자들은 앞줄에 서서 교만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도취되어 있었다. 군중은 열광 속에서 밀려들어,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민족적 자부심의 축제였고, 그 절정은 삼손의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축제의 외침은 울려 퍼졌다. 모든 마음이 다곤에 대한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모든 목소리가 승리를 자랑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이렇게 작동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면, 세상은 자기 우상을 가리키며 정당함을 주장한다. 믿는 자들이 타협할 때마다 이방의 교만은 강화된다. 그들의 눈에 삼손의 수치는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수치였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더 원했다. 군중은 삼손 자신을 요구했다. 통치자들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삼손은 한 소년에 이끌려, 눈이 멀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 광경만으로도 군중은 폭소를 터뜨렸다. 한때 그들을 떨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조롱받고 있었다. “삼손을 끌어내라! 우리를 즐겁게 하라!” 그들은 외쳤고, 삼손은 군중 한가운데에 세워졌다. 그들의 오락거리가 그의 무대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준비하고 계셨다.

삼손은 그를 인도하던 소년에게 말했다. “이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들에 내가 손을 댈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데려다다오. 그 기둥에 기대고 싶다.” 소년은 그대로 했다. 무엇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축제의 소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제물의 냄새가 공기에 남아 있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앞줄에 서 있었고, 지붕 위에는 군중이 가득 찼다. 삼손은 다곤의 신전의 기둥 사이,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곳에 서 있었다.

그때 삼손은 기도했다. 말은 짧았으나 그의 삶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는 더 이상 레히에서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다. 그때 그는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불평했었다. 그는 확신은 있었지만, 경솔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경외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주권자라 부르며 자신의 의존을 인정했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다.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깊은 울림을 가진 표현이었다. 한나는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소서” 라고 구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여, 나를 선하게 기억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청했다.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가 잊으셨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호소였다. 삼손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다시 한 번 힘을 구할 담대함을 주었다.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청원이 아니었다. 그는 장님이 되어 묵인 채 조롱받으면서도, 자신의 두 팔로 돌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예전의 당연시하던 태도는 잃었지만, 믿음은 남아 있었다. 이제 그의 마음에서 확신과 경외가 하나가 되었다. 확신만 있고 경외가 없을 때 그는 경솔해졌고, 경외만 있고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패배 속에서 침묵했을 것이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위선적 경건이 바로 이러한 과오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에는 확신과 경외가 함께 있었다. 그의 믿음은 정련되었고, 마지막 기도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헌신의 행위가 되었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은 참된 기도의 본질을 보여준다. 믿음은 두려워 움츠러들지 않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에서 넘어지는데, 담대함 없이 기도하여 적당하고 가능해 보이는 것만 구하거나, 혹은 경외 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전자를 옹호하며, 그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손을 비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 가운데 후자를 더 기뻐하셨고, 그 때문에 삼손을 그의 생애 동안 변호하셨으며 성경에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삼손은 평생 후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 그의 믿음은 정결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에게에는 불가능한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였다.

삼손은 두 기둥에 양손을 얹고 몸을 굽혀 힘을 모았다. 장님이 되어 조롱받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밀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초가 요동했고, 지붕은 삼천 명의 무게로 떨어졌다.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붙이자 성전은 무너졌다. 통치자들은 깔려 죽었고, 백성들은 스스로 벌인 축제의 폐허 속에 파묻혔다. 그들이 찬양하던 신은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다곤의 성전은 곧 그 숭배자들의 무덤이 되었다.

기록자는 “그가 죽을 때에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고 덧붙인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의 모든 생애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절망에서 비롯된 자살이 아니라 믿음의 희생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도록 태어났고, 그의 죽음 속에서 그 부르심을 완수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숨이 가장 큰 승리가 되도록 정하셨다. 가사는 그의 치욕의 장소였으나, 그 자리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약함을 통해 힘이 드러났고, 죽음을 통해 승리가 이루어졌다.

그의 가족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아버지의 묘에 장사했다. 기록은 “그가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다스렸다” 라는 말로 마무리된다. 이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의 인정의 도장처럼 서 있다. 그의 생애는 실패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고, 믿음에 의해 완성되었다. 들릴라의 치욕은 사라지고, 다곤의 성전이 무너진 순간이 그의 정체를 결정짓는 사건이 되었다. 성경은 그 승리를 기억하며,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그를 존귀하게 높인다.

믿음은 실패보다 강하다. 삼손은 열정적이었고, 경솔했고, 어리석었다. 그러나 믿음은 그의 안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교만을 벗겨냈고, 확신과 경외가 하나로 결합되게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도록 강요받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았다. 약함 속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고, 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죽음 속에서 그는 생애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었다. 성경이 그가 믿음으로 칭찬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삼손은 두 팔을 벌려 기둥을 밀었고,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셨다. 삼손은 블레셋의 통치자들을 무너뜨리며 죽었고,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시며 죽으셨다. 삼손의 죽음은 자신의 두 눈을 위한 복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했다. 삼손은 죽음 속에서 생애보다 더 많은 자를 쓰러뜨렸고,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서 생애로는 구원할 수 없는 무수한 자들을 구원하셨다. 삼손은 심판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오셨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의 믿음으로 기억되며, 그리스도는 영원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높임을 받으신다.

대조도 교훈을 준다. 삼손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박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결박되셨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 눈이 뿔혔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얼굴이 맞으셨다. 삼손의 죽음은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의 권세를 파괴했다. 삼손은 원수들의 더미 속에 쓰러졌고,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만 구원했으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삼손은 앞으로 올 분을 가리켰고, 그리스도는 삼손이 상징한 모든 그림자와 예언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은 삼손을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선지자들과 함께 두셨다.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 삼손은 외로웠고, 오해받았고, 조롱받았다. 부모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여인들은 그를 이용했고, 동족들은 그를 배신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를 멸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 그의 믿음은 끝까지 견뎠고, 그의 죽음은 그의 부르심을 완성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부른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그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살라고 부른다.

## 9. 그리스도의 그림자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을 정욕이나 들릴라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기억한다. 하늘의 기록은 그를 나라들을 이기고, 군대를 패주시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 가운데 두었다.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며, 원수들의 조롱과 비평가들의 왜곡에 맞서 서 있는 말씀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애를 하나의 경고담으로 축소시키거나, 마치 그의 이야기가 실패뿐인 것처럼 고개를 저으며 안쓰럽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의 전당에 기록하셨지, 어리석은 자들의 목록에 기록하지 않으셨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며, 마지막 말씀은 믿음이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쳐 두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다. 하나님은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선지자들과 함께 한 호흡으로 칭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 속에 새기셨다. 이것이 하늘의 판결이다. 사람들이 삼손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삼손에 대해 틀렸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본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삼손을 멸시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다.

삼손의 삶은 풍자와 조롱에 가려져 왔다. 그는 음탕하다는 비난을 받지만, 실제로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부모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그를 배신했고, 동족은 그를 버렸고, 원수들은 그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후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때, 그들은 그의 죄와 몰락만을 보고, 그의 존재 전체가 허비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 그의 외로움은 부패의 증거가 아니라 충성의 증거였다. 다른 이들이 안락과 타협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고립의 무게를 짊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에 그의 고독은 그의 힘의 면류관이 되었고, 그의 수치가 아니었다.

삼손이 혼자 행동했다는 비난은 사실 그의 가장 큰 칭찬이다. 그의 동족은 싸움보다 굴복을 택했으나, 그는 거둑거둑 원수를 쳤다. 그들은 그를 줄로 묶어 압제자들에게

넘겼으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홀로 걸어 나갔다. 그의 고독은 무리를 정죄한다. 그가 신실했을 때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리스도 역시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삼손의 고독은 실패가 아니었고, 동료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믿음이었다. 그가 고립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이었다.

이 패턴은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섰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동족은 그를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 선지자들은 종종 홀로 걸었고, 구원하러 보냄을 받은 백성에게 멸시를 받았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더 날카롭다.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에게는 그의 말을 기록한 바룩이 있었지만, 삼손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백성은 그를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다. 온 민족이 믿음보다 종살이를 선택했다. 그의 고립은 완전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원수를 쳤다. 그의 믿음은 철저한 고독 위에 서 있었기에 더욱 높이 서 있는 것이다.

그의 효력의 크기는 무시할 수 없다. 군대도 없고, 동맹도 없고, 자기 백성의 지원도 없이, 삼손은 블레셋의 힘을 떠받치는 모든 기둥을 쳤다. 그는 그들의 밭을 불태우고, 포도원들을 파괴하고, 병사들을 도륙하고, 성문을 성벽에서 뽑아내고, 신전을 무너뜨렸다. 농업, 경제, 군사, 정치, 종교, 이 모든 것이 그의 반복되는 타격 아래 무너졌다. 이스라엘의 어느 군대도 그와 함께 일어서지 않았으나, 그는 여전히 원수의 등뼈를 부러뜨렸다. 현대 교회는 마치 힘이 공동체성 속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공동체와 교단과 기관들을 자랑하지만, 오천 개의 모임을 다 합쳐도 믿음으로 삼손이 이룬 것에 견줄 만한 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믿는 한 사람은, 타협하는 무리보다 어둠의 세력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

그는 그들의 추수를 망가뜨려 경제를 쳤다. 그는 그들의 사람들을 죽여 군사력을 마비시켰다. 그는 통치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그들의 약함을 드러냈다. 그는 가사의 성문을 뽑아 그들의 안전과 교만을 빼앗았다. 그는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려, 그들의 종교를 중심에서 깨뜨렸다. 블레셋의 삶의 모든 영역, 경제, 군사, 정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에 의해 흔들렸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니었고, 목적 없는 힘의 과시도 아니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집행된, 하나님의 정밀한 심판이었다. 그의 믿음은 원수에게 파괴적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역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다. 제자들은 입으로는 그를 시인했으나, 그가 체포되자 두려워 도망쳤다. 그를 가장 사랑한 자들조차 한 시간도 그와 함께 깨어 있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믿음을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친밀함은 부족했다. 예수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 살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멀어지지도 않으셨다. 삼손은 오해받을 때 약해졌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이 떠나도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힘을 얻으셨다. 삼손이 흔들린 자리에서, 예수도 홀로 계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굳게 서 계셨다.

그럼에도 삼손의 믿음은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할 높이에 도달했다. 그는 눈이 멀고, 묶이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다. 그는 시력도, 무기도, 동맹도, 자유도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믿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망하여, 자기 이야기가 끝났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진된 것이 아니며, 자기의 부르심이 취소된 것이 아니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의 패턴이며, 완전한 거룩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삼손과 같은 사람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철저히 선한 것인지 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정도의 파괴와 폐허 이후에, 단지 용서만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온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한다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유일하다. 삼손은 그런 기록 없이도 믿었다. 그의 마지막 믿음은 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께서 가져오실 구속, 곧 회개와 믿음과 능력을 한 몸에 구현하는 제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삼손은

이 모든 것을 혼자 했다. 심각한 죄에 빠졌던 다윗도 이 정도로 수치를 당하거나 무력해지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친구들의 도움과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았다. 삼손은 그런 것 하나 없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팔의 힘만이 아니라, 절망에 맞선 믿음의 승리였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낭비했고, 서원을 깨뜨렸고, 한 여인에게 배신당했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했고, 눈이 멀었고, 종이 되었고, 짐승처럼 곡식을 가는 자리까지 떨어졌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 패배의 공적인 상징이 되었다. 그 구덩이에서 그는 자비만이 아니라 승리를 믿었다. 그의 마지막 믿음은 이전의 모든 업적보다 더 눈부시다. 사자를 찢고, 성문을 뿔아내는 데에는 힘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데에는 더 큰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행동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다.

그의 마지막 기도에는 그의 삶 대부분에서 빠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이전에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가볍게 하나님께 말했다. 레히에서 그는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예배가 아니라 불평을 했다. 그는 불평하면서도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 때문에 여전히 응답하셨다. 그러나 가사에서, 눈이 멀고 낮아진 그는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부르며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구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호소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겼다. 믿음과 친밀함이 하나가 되었다. 그는 교만이나 당연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존하는 마음으로 힘을 구했다. 삼손의 믿음은 교제로 성숙했다. 한때는 경솔하던 자가 경건한 자가 되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외로움이 마침내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죽었다. 그는 삶 가운데 완전히 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친구”로 죽었다.

물론 삼손의 흠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야기의 일부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다. 더 큰 계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했다. 야곱은 속였다. 모세는 반석을 쳤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었고, 솔로몬은 우상에게로 돌아섰고, 삼손은 조종당하는 데 자신을 내맡겼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보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아무리 큰 은사와 충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메시아로 충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신학을 쓰고 계셨고, 그 문장은 이 사람들의 삶으로 기록되었다. 그들 각각은 구속자의 예표였으나, 모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존재뿐임을 세상에 가르치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갈을 취하여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했지만, 분노로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간음과 살인에 빠졌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구별되었지만, 은사를 허비하고 들릴라에게 무너졌다. 그들 모두는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흠이 있었으며, 모두 앞을 가리켰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쓰고 계셨다. 세상은 더 큰 구원자를 필요로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람, 참된 이스라엘, 최종적인 용사이시다.

교회는 이것을 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위한 믿음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홀히 한다. 삼손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경고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기적을 구하거나 믿는 자리까지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함은 없다. 능력을 거부하면서 교제를 말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함은 언제나 기적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시며, 찬송할 만한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리이까.”

삼손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드러낸다.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친밀함이 없어서 약했다. 교회는 친밀함을 말하지만 능력이 없고, 그 주장이 거짓임이 폭로된다. 유일한 길은 믿음과 사랑, 담대함과 경외, 교리와 기적을 하나로 붙드는 것이다. 그보다 적은 것은 위조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삼손을 오해하는데, 그의 고독을 그의 잘못으로 돌린다. 그들은 그가 혼자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를 무모하고 제멋대로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부모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그를 배신했고, 동무들은 그를 조롱했고, 동족은 그를 버렸다. 그에게 군대가 없었던 것은, 아무도 그와 함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백성은 거듭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삼손이 우상과 타협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 반대로, 그는 평생 우상 숭배자들을 쳤고, 마지막 행동은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고독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비겁했을 때 신실했다. 그의 고립은 반역이 아니라 순종이었다. 그의 고독을 실패로 묘사하는 것은, 그를 배신한 자들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이들이 서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혼자 신실하게 선 자였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위대함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의 절정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다. 그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때에 회복을 믿었다. 패배가 완전해졌을 때 승리를 믿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 이 믿음은 그가 이전에 행한 어떤 기적보다도 크다. 그것은 절망에 거스르는 믿음이고, 패허 이후의 믿음이며, 죽음을 눈앞에 둔 자리에서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기록된 것이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허비했을지라도, 믿음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그의 마지막 행동은 그의 가장 큰 승리였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긴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는 천사의 소식을 받고 태어났고, 태에서부터 구별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가족에게 오해를 받았고,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고, 원수들에게 넘겨졌고, 약함 가운데서 조롱을 받았고, 죽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불레셋 사람들을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 삼손의 삶은 위대했지만, 더 위대한 분을 가리켰다. 그의 결점은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 삼손의 죽음은 그것을 암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을 이루었다.

둘째, 삼손은 능력 있고 친밀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는 교제 없는 믿음이 우리를 노출시키고, 믿음 없는 교제는 더 나쁘며,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믿음 가운데 있는 고독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임을 보여 준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믿는다면, 파국적인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삼손의 믿음, 곧 그의 신학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다른 차원에 있었다. 이것은 그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갖지 못한 독특함을 그가 가졌다는 뜻이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피상적인 비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라고 요구한다. 세상은 그와 같은 사람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계산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다가가지 못하는 높이에 이르렀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도 평가하지도 않는 그 자리까지 갔다. 그는 우리에게,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 걸으며,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회복을 믿으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난다.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묻혔고, 그의 일은 끝이 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고, 그의 믿음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의 죄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 준다. 그의 승리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임을 보여 준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으로 마지막 원수를 멸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삼손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다. 삼손은 믿었고,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참된 챔피언이시며, 믿음의 창시자요 마무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같은 종류의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세상은 구원을 얻는다.